

현안과 과제

■ 2015년 하반기 투자 환경 전망과 시사점
- 투자 여건 조성으로 '경기 회복세 확대' 유도

Executive Summary

< 요약 >

■ 도입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평균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평균 3.2%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0.97%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0.47%p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60%p로 금융위기 이전(2.54%p) 대비 0.94%p 하락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4%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72%p)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 2015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

(2015년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미국 금리 정상화'와 '중국 경기 둔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국내 리스크는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과 '메르스로 인한 내수소비 부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경제 전망) 하반기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56.2%의 기업이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6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한 기업이 78.6%를 차지했다.

(기업 환경 전망)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75.4%였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기업 경영 및 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한편, 정부에 바라는 기업 지원책은 '규제완화' 및 '추경 등 경기부양책'이라는 응답이 50%를 상회했다.

(2015년 하반기 매출 및 고용)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45%를

상회했다. 하반기 신규 고용 규모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0%를 상회했다.

(2015년 하반기 자금 및 내수 시장) 하반기에 기업체의 자금사정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75.0%에 달하고 내수시장 규모는 '상반기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2015년 하반기 설비 투자 및 영업 이익 목표) 2015년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 이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0%를 넘었다. 영업이익 목표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이거나 증가하겠다'는 기업은 66%를 넘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6.9%를 차지했다.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 2015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을 '1,001~1,100원'으로 전망한 기업이 59.2%를 차지했다. 엔/달러 환율을 '110~120엔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은 46.5%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2.1%를 차지했다. 한편,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엔/달러 환율이 120.0엔 미만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80.0%에 달했다.

(투자 지수 평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08.9로 6개월전 120.2 대비 하락했다. 세부 지수별로 보면,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하락했고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도 하락했다. 투자추세지수가 2015년 하반기 80.5로 상반기 107.9 대비 27.4p 하락했고 투자심리지수는 149.6으로 6개월전 161.9 대비 12.3p 하락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30.8로 6개월전 146.1 대비 15.3p 하락했으나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11.7로 6개월전 105.7 대비 6.0p 상승했다. 한편,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1.7로 6개월전 79.3보다 하락했고 여전히 기준치 100미만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서도 저조한 상황이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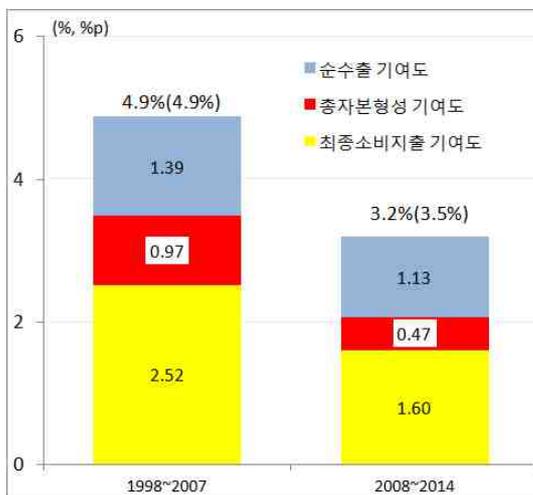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 완화와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기 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투자 부진세 지속

○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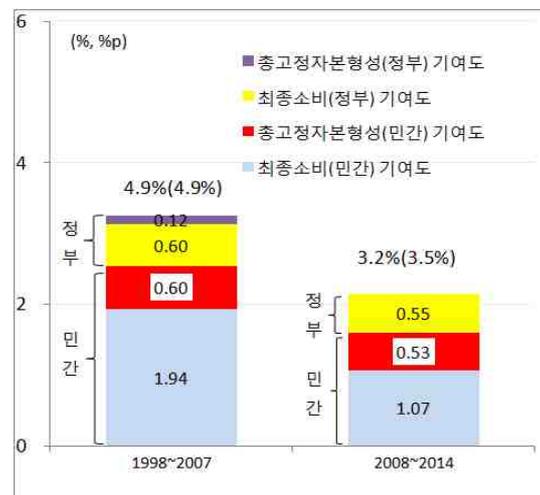
-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
 -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 평균 4.9%(4.9%)에서 금융위기 이후 평균 3.2%(3.5%)로 하락함
 - 지출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상승했으나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평균 2.52%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년~2014년) 1.60%p로 하락
 -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0.97%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0.47%p로 하락
-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음
 - 총고정자본형성에서 민간 부문 경제 성장 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0.60p에서 금융위기 이후 0.53p로 하락. 정부 부문은 0.12%p에서 -0.01%p로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60%p로 금융위기 이전(2.54%p) 대비 0.94%p 하락
 -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4%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72%p)

< GDP 성장률 및 지출부문 기여도 추이 > < 투자와 소비의 공공/민간 경제 성장 기여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해당 기간 중 잠재성장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해당 기간 중 잠재성장률.

2. 2015년 기업 경영 전망1)

1) 국내외 경제 전망

○ (국외 경제 전반) 국내 주요 기업들은 '미국 금리 정상화' 및 '중국 경기 둔화'를 세계 경제 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으며,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와 성장세가 유사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 불안 요인 : '미국 금리 정상화'와 '중국 경기 둔화'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레이션(장기침체) 우려'와 '엔저와 원화 환율 불안 고조'가 다음으로 큰 응답 비중을 나타냈음

· '미국 금리 정상화'를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한 기업은 23.0%의 비중을 차지하여, 국내 기업들이 2015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 리스크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국 경기 둔화'도 전체 설문 응답의 23.0%를 차지하여, 많은 기업들이 2015년 하반기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레이션(장기침체) 우려'와 '엔저와 원화 환율 불안 고조'도 각각 전체 응답 기업의 19.4%, 14.4%가 불안 요인으로 응답하여 세계 경기 장기 침체와 환율 관련 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하반기 세계 경제 : 국내 다수의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응답

· 2015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세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68.1%로 가장 많았고,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0.6%를 차지했고,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1.4% 기록

< 2015년 하반기 대외 불안 요인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복수 응답 기준.

< 하반기 세계 경제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1) 본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6월 18일 ~ 6월 23일(4일간)였음. 매출액 기준 국내 10개 업종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73개 기업이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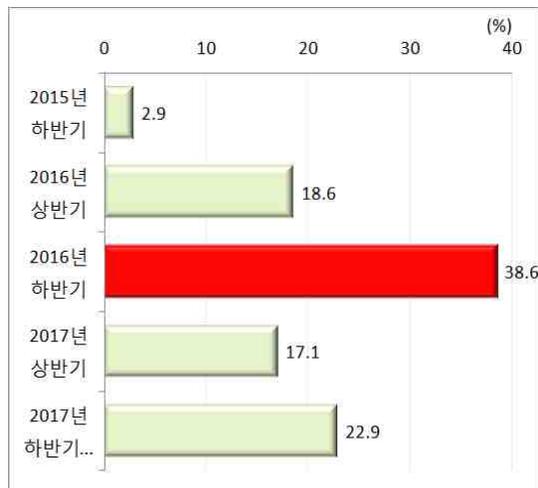
○ (국내 경제 전반)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 국내 경제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이고 본격적 경기 회복 시점은 2016년 하반기로 응답.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을 가장 큰 경영 위협으로 지적

- 2015년 하반기 국내 경제 양상 : 2015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많은 56.2%를 차지
 · '침체국면(더블딤) 진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4.2%이고 '회복세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9.6%였음

- 본격적 경기 회복 시점 :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시점에 대해서 전체 응답 기업 중 38.6%의 기업이 '2016년 하반기'라고 응답하였음
 · '2015년 하반기'로 응답한 기업은 2.9%, '2016년 상반기' 18.6%, '2017년 상반기'는 17.1%, '2017년 하반기 이후' 22.9%로 나타남
 · 주요 기업들은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로 1~2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경영 위협 요인 : 대부분의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28.2%)' 및 '메르스로 인한 내수 소비 부진(22.5%)'을 지적했음
 · '가계부채 증가'와 '투자 위축'은 각각 14.8%를 차지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13.4%, '재정건전성 악화' 4.2%, '부동산 경기 부진' 2.1%의 순으로 나타남

< 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015년 하반기 경영 위협 요인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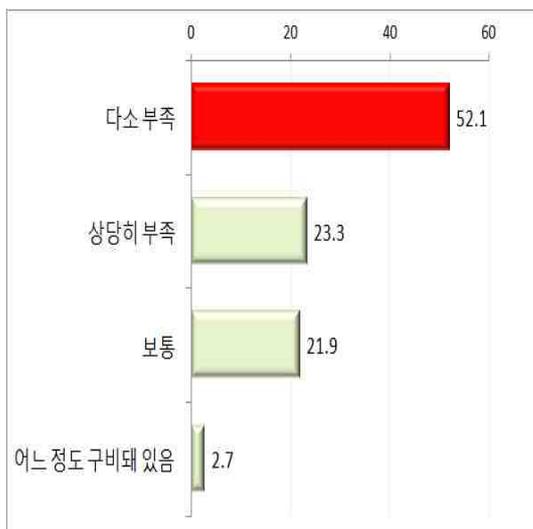
주 : 복수 응답 기준.

2) 기업 환경 전망

○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영향)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70%를 상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기업경영 및 투자에 '부담된다'라는 응답이 60%에 달함

-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 및 '다소 부족'이라는 응답이 75%를 상회
 - 한국의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 23.3%, '다소 부족' 52.1%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75.4%를 차지
 - 다음으로는 '보통' 21.9%, '어느 정도 구비돼 있음' 2.7%로 나타남
 - 국내 기업에 필요한 경영권 방어제도는 '차등의결권 제도'라는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기간산업 M&A 사전심의' 27.6%, '포이즌필' 25.5%, '황금주' 11.2%, 기타 1.0% 순으로 나타남
- 정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영향 : 정부가 내놓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기업경영이나 향후 투자확대에 '부담된다' 58.9%, '상당한 부담이다' 11.0%로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69.9%를 차지
 - 다음으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20.5%, '경쟁력 개선에 도움된다' 9.6%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에 바라는 기업 지원책 : 정부에 바라는 기업 지원책은 '규제완화' 및 '추경 등 경기부양책'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0%를 상회
 - 국내 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기업 지원책은 '규제완화' 30.1%, '추경 등 경기부양책' 23.3%, '급격한 환율변동 방지' 16.4%, '기업 기살리기' 15.1% 순임
 - 다음으로 '법인세 인하' 8.2%, '사업재편 지원' 5.5%, '기타' 1.4% 순으로 나타남

<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평가 > < 정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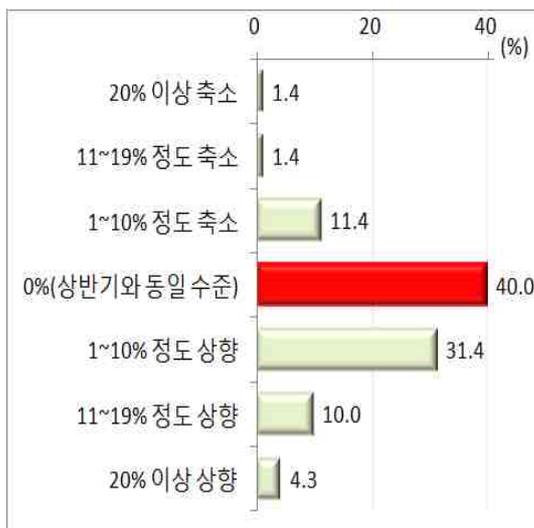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3) 2015년 하반기 경영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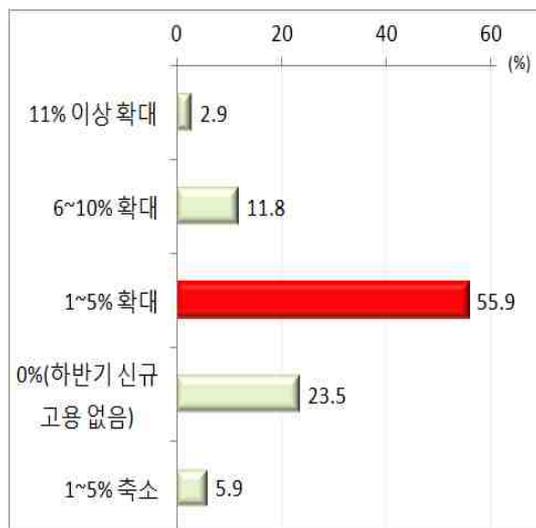
○ (2015년 하반기 매출 및 고용 전망) 2015년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45%를 상회했고, 신규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70%를 상회

- 2015년 하반기 매출 목표 : 2015년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0%)'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의 40.0%를 차지
 - 2015년 매출 목표가 '1~10% 축소'하겠다는 11.4%, '11~19% 축소'와 '20%이상 축소'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1.4%,
 - '1~10%정도 상향' 하겠다고는 31.4%, '11~19%정도 상향' 10.0%, '20%이상 상향' 4.3%를 차지함
- 신규 고용 규모 : 2015년 하반기 신규 고용 목표는 상반기 대비 '1~5%'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냄
 - '11% 이상 확대'로 응답한 기업 2.9%, '6~10% 확대'로 응답한 기업 16.2%, '신규고용 없음(0%)'으로 응답한 기업 23.5%, '1~5% 축소' 하겠다고는 기업은 5.9%로 나타남

< 2015년 하반기 매출 목표 > < 2015년 하반기 신규 고용 규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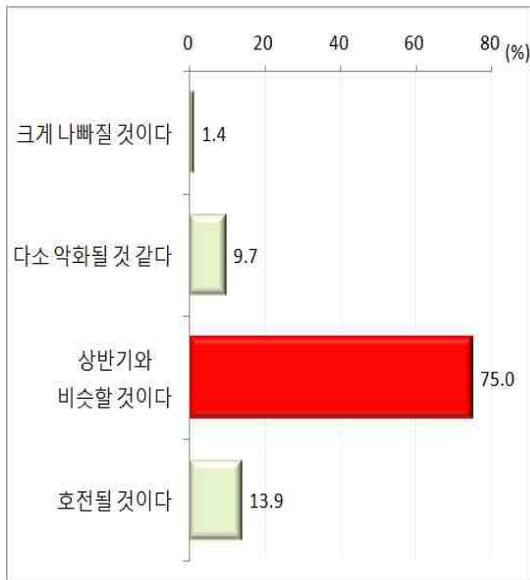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015년 하반기 자금 및 내수 시장) 2015년 하반기에 기업체의 자금 사정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75%에 달하고, 내수시장 규모는 '상반기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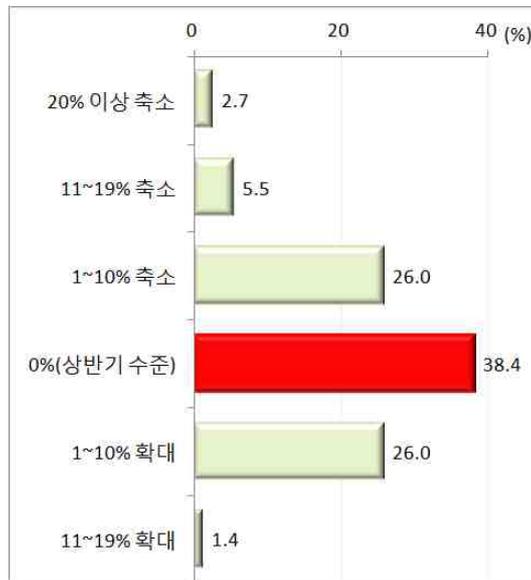
- 2015년 하반기 자금사정 : 주요 기업들은 자금사정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75.0%로 가장 비중이 컸음
 - 2015년 자금 사정이 '다소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기업은 9.7%, '크게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는 기업은 1.4%를 기록
 - 한편, '호전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3.9%를 차지
- 2015년 하반기 내수 시장 규모 : 각 업체가 속한 내수시장 규모에 대해서 '상반기 수준(0%)'일 것이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음
 - 반면 '1%~10% 축소'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26.6%, '11~19% 축소'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5.5%, '20%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2.7%를 차지
 - '1%~10% 확대 및 '11~19%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6.0%, 1.4%를 차지

< 2015년 하반기 자금사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015년 하반기 내수시장 규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2015년 하반기 투자 및 영업 목표)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영업이익은 10% 이내에서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설비투자 : 2015년 하반기에 설비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0%)'라는 의견이 6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1~10% 정도 축소'라는 응답은 12.9%, '11~19%정도 축소' 1.4%, '20%이상 확대' 1.4%, '1~10%정도 상향' 18.6%, '11~19%정도 상향' 1.4%, '20% 이상 상향' 4.3%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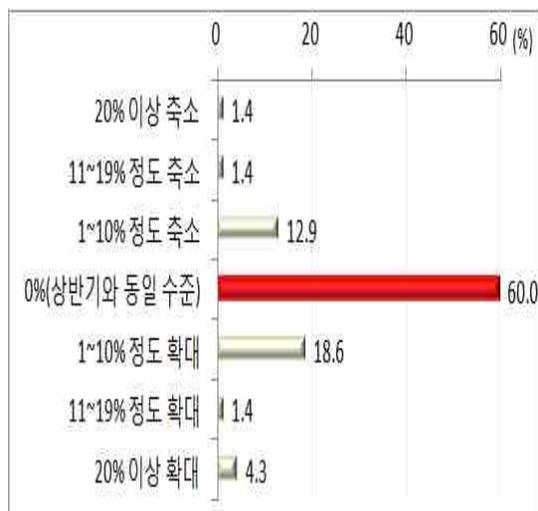
- 영업이익 : 2015년 영업이익 목표 역시 '1~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44.9%로 가장 많았음

· '11~19% 감소'로 응답한 기업은 10.1%, '1~10% 정도 감소' 20.3%,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0%)' 13.0%, '11~19%정도 증가' 7.2%, '20%이상 증가' 1.4%를 차지

- 2015년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 :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6.9%로 가장 많았음

· '비상경정체제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16.7%, '매출 증대'로 응답한 기업은 16.7%, '투자 증가'로 응답한 기업은 6.9%, 'M&A 등 신사업 진출' 2.8%의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하반기 설비 투자 규모 > < 2015년 하반기 영업이익 목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이라는 응답이, 엔/달러 환율은 120엔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원/달러 환율 : 전체 응답 중 59.2%의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을 '1,101~1,200원'으로 전망
 - 2015년 1월~6월 18일까지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기준)은 평균 1,098.0원임

원/달러 환율	901~1,000원	1,001~1,100원	1,101~1,200원
비중(%)	1.4	59.2	39.4

- 엔/달러 환율 : 전체 응답 중 46.5%의 기업들은 엔/달러 환율은 '110엔~120엔'을 전망
 - 2015년 1월~6월 18일까지 엔/달러 환율은 평균 120.0엔임

엔/달러 환율	90엔 미만	90~100엔 미만	100~110엔 미만	110~120엔 미만	120~130엔 미만	130~140엔 미만
비중(%)	1.4	7.0	8.5	46.5	35.2	1.4

- 원/달러 손익분기점 환율 :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에 대해서 34.8%의 기업이 1,050원 수준으로 응답
 - 950원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 6.1%, 900원은 1.5%를 차지
 - 한편 1,000원으로 응답한 기업은 30.3%, 1,050원 34.8%, 1,100원 25.8%, 1,200원 1.5%를 차지
 -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1,050원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62.1%를 차지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	900원	950원	1,000원	1,050원	1,100원	1,150원	1,200원
비중(%)	1.5	6.1	30.3	34.8	25.8	0.0	1.5

- 엔/달러 손익분기점 환율 :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에 대해서 32.3%의 기업이 120.0엔 수준으로 응답
 - 110엔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 29.2%, 115엔은 18.5%를 차지
 - 한편 125엔으로 응답한 기업은 9.2%, 130엔 7.7%를 기록, 135엔 3.1%를 차지
 -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120.0엔 이하로 응답한 기업이 80.0%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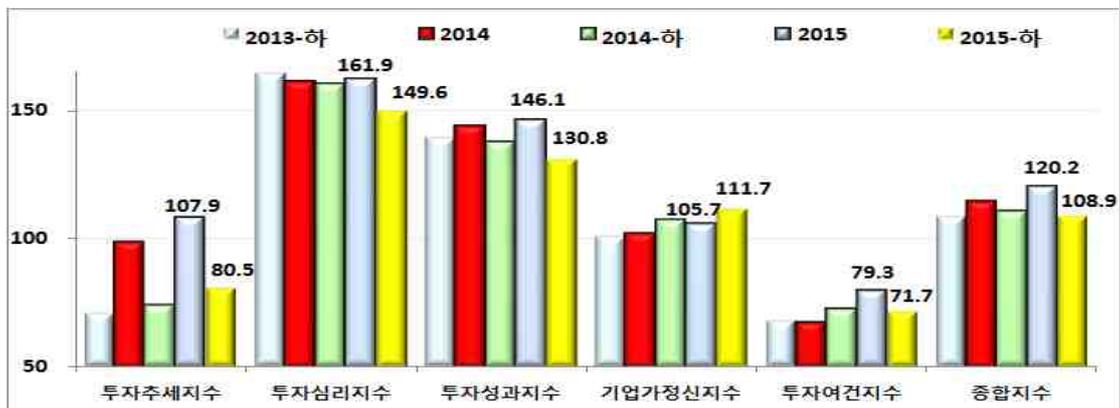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	110엔	115엔	120엔	125엔	130엔	135엔
비중(%)	29.2	18.5	32.3	9.2	7.7	3.1

3. 기업투자지수 평가

○ 국내 주요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2015년 상반기 대비 하락했고 투자실적을 나타내는 추세지수와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심리지수도 하락. 단, 기업가정신지수는 소폭 상승함

- **종합지수 하락** :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08.9로 하락. 국내 100대 주요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가 2015년 상반기 120.2 대비 하락
- **지수별 평가** : 2015년 하반기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투자 심리가 상반기 대비 위축되고 투자 여건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하반기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기 힘든 상황
 - **투자 실적 하락** : 상반기 진행되고 있는 투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줄었고, 2015년 하반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심리 다소 위축** : 상반기 대비 지수가 하락했으나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욕이 여전히 강하고, 경기 부진에도 투자 지속에 대한 의지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투자 대비 성과 미흡** : 상반기 대비 성과지수가 하락했으나 2015년 상반기 투자대비 성과는 좋았다는 기업이 많았고, 향후에도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음
 - **기업가정신 소폭 상승** :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높으나, 리스크가 클 경우 투자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여건 개선 미흡** : 2015년 상반기 대비 투자여건지수는 하락함. 기업들은 현재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

< 기업투자지수 추이 >



주 : 1) 2013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3년 6월 24~28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2) 2014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3년 12월 9~13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3) 2014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4년 6월 20~27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4) 2015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4년 12월 18일~2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5) 2015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5년 6월 18일~2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4. 시사점

-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어, 규제 완화,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적극적인 투자 여건 개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 국내 경제 회복력이 저하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 회복 등 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도모

- 기업들은 2016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15년 하반기 경제 정책의 주된 방향이 '소비 제고', '가계부채 안정화', '투자 활성화'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걸림돌로 지적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임
-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
 -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확대 → 기업 수익성 향상 → 고용 확대 → 국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추진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

-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 62% 이상의 기업이 1,050원 수준 이상으로 응답
 - 손익분기점 엔/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80.0%의 기업이 120.0엔 이하로 응답
- 기업들이 환율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미세 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엔저 지속 등 환율 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관련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

셋째,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

- 미국 등 세계 경기의 회복에 대응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
- 적극적인 R&D 투자와 신사업 투자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야 함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홍유립 연구위원 (2072-6243, ylhong@hri.co.kr)